

Ⅱ. 교당조직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이관도 위원*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교당조직의 구분.....	19
2. 교화조직.....	20
3. 운영조직.....	20
4. 봉공조직.....	21

1. 교당조직의 구분

교당규정 17조에 의하면 교당의 조직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목 적	종 류
교화조직	교당의 교화	· 일반, 청년, 대학생, 학생, 어린이 교화단 · 지역, 단체, 직장별 교화단
운영조직	원활한 교당 교화운영	·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각 분과
봉공조직	일원대도의 사회구현	·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상기조직 외에도 교당에 따라서 각종 친목적 성격의 모임이나 동질성 확보를 위한

* 이관도 위원 : 원기 84~85년까지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신창원교당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조직 및 특수 목적의 모임 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조직 등은 나름의 목적을 이루고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기 17조 규정의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조직운영에 있어서 公事의 계통과 절차에 있어 원근친소나 사적 집단의 이해에 따라 합리성이 저상(沮喪)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교화 조직

교화조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화단 조직이 교단의 대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교화단 조직에 있어서 일반교도 교화단 조직 속에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별도의 단을 조직하고 법회는 일반법회(일요법회)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과 대학생 지도교무를 두어 단 활동을 통하여 청년과 대학생 특성에 맞는 자율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년과 대학생을 일반교도 교화단 속에 넣고 법회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반법회의 분위기를 익히고 우리 법에 보다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과 대학생 법회를 독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년과 대학생을 일반교도로까지 연결하는데, 그 역할이 미진하고 결혼과 직장생활의 초기 적응시기 등으로 인하여 3-40대 젊은 교도의 활동력이 약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결국 교도 분포가 노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3. 운영조직

교당의 원활한 교화 운영을 위해서는 의결기구와 실행협의기구 및 실행기구가 각각 조직되어 있고 상호 상충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결기구인 교당교의회는 시산 및 교화활동계획 점검 및 현안과제 협의 등을 위하여 반드시 월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교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의 공사정신을 바탕으로 교의회에서는 모든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논

의외도록 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당운영에 있어서 교화협의회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화협의회의 구성은 교당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교당규모가 평균 일반법회 출석교도 100인 이하의 교당은 교당규정에 명시된 각 분과 실행기구를 다 조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0인 이하(출석교도) 교당은 교화협의회가 상당부분 실행기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인적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여건에서 조직을 세분화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4. 봉공조직

1) 봉공회와 여성회

봉공회의 리더십은 주로 활동 연조에서 그리고 여성회의 리더십은 대외활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봉공회와 여성회의 단순통합은 리더십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반면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냥 이원화된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매트릭스(행렬) 조직을 활용하여 봉공회 활동을 할 때는 여성회 임원진도 봉공회원으로, 여성회 활동을 할 때에는 봉공회 임원진도 여성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모든 봉공회원은 여성회원이 되며 모든 여성회원은 당연 봉공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합모델이라고 본다.

2) 청운회

청운회의 가장 핵심활동 단위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교당이 협력하여 활동해야 한다. 상설 중앙조직을 두고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회비 납부도 하고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의례적으로 갖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교구 청운회도 마찬가지로 서울·부산 등 광역시 교구는 가능하겠으나, 도 단위 교구에서는 상설 교구 청운회는 무의미하며 교구차원에서 필요시 지역 청운회의 연합체로 기능하면 될 것이다.

중앙 청운회, 교구 청운회, 지구 청운회, 교당 청운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의 조

직은 옥상옥으로 조직을 위한 조직의 성격이 강하며 관리 기능이 중복되고 공연한 회비납부체계 등 비합리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

청운회 활동은 지역사회 활동을 잘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서 교법의 현실구현에 앞장 서고 지역사회 봉공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전 교단적으로 또는 교구수준에서 대처할 문제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지역단위 청운회가 연합체로 대응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본다.

- 3) 봉공회와 여성회, 청운회, 기타 단체의 봉공활동은 NGO활동 등 필요에 따라 연합체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